



# 사랑의 메아리

국제 ACN 설립

# 70주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Aid to the Church in Need Korea

발행: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전화: 02-796-6440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2017년도 제6호 · 9월 발행



손 안의 보물,  
성경을 손에 든 에리트레아의 한 수녀

“우리가 만일 성경을 우리 손에 쥔  
휴대폰처럼 여긴다면 어떨까요?  
성경을 매일같이 펼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치 휴대폰에 뜨는 메시지처럼  
읽는다면 말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7년 3월 5일 주일 삼종기도 중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 가장 널리 보급된 책이며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한 번 읽고 책장에 꽂아 두는 책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앞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마치 문자메시지처럼, 아니 그보다 마치 연애편지처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건네십니다. 세상 그 누가 하느님으로부터 편지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쓰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구성하는 각 책들의 저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신앙은 성경 텍스트의 다양한 층위 속에서 문학 작품보다 더 큰 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

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 내적 통일성을 주며 모든 성경 말씀의 해석을 위한 열쇠가 되어 줍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육신을 취하며 그와 동시에 역사적, 비평적으로 구분 지어진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드러내 보여 줄 것입니다.



성경이 가진 폭발적인 힘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움직임을 꿰뚫고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며 정치적 선언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소년용 교리 교재 <유캣(YOUCAT)>의 머리말에서 ‘성경은 마치 불꽃과 같은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은 또 “그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명 전체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고, 전쟁으로 갈라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다이내마이트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한낱 문학 작품인 양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소.”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진 이 폭발적인 힘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구금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책 한 권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죽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

니 우리 모두 성경을 다시금 우리 집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비치합시다. 그리고 자주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성경의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 신부



# 시리아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평화와 연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시리아와 한국의 젊은이들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6년도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시리아 전쟁의 상처와 그 폭력성에만 무게를 두는 반면, 시리아 청년들의 눈은 희망의 표징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의 젊은이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폭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폭력에 지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마즈드 알자흠(27세·흡스), 왓심 파쿠(26세·흡스), 조지나 음바예드(25세·알레포), 3명의 시리아 청년들이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마련한 ‘2017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 평화순례’ 참석을 위해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즈드와 왓심은 시리아 서부 도시 흡스의 그리스도인 계곡에서 교황청 재단 ACN의 지원을 받아 국내 난민들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ACN은 시리아의 젊은이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한국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한국 청년 22명과 만나며 ‘시리아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즈드, 왓심, 조지나는 “이 전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리아 내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조지나는 시리아 전쟁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인 알레포 출신으로, 폭탄과 총격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자신의 머리가 하얗게 썬 정도였다고 다에시(IS)의 포위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기나긴 전쟁이 시작될 무렵 치과 의사였던 마즈드는 자신의 병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비폭력과 인권 대학(AUNOHR)에서 학위를 수료 중입니다.

**“평화! 평화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 평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즈드는 평화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가치인 한편,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룩하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역설함

니다. 그녀가 평화 대신 비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비폭력은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며 바로 거기서부터 자신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시리아 청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이 모든 갈등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전에 개입된 이들의 상황과 견해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심도 깊은 대화가 지속되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리아 청년들은 지금 절망과 좌절 사이, 억압과 인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시리아와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 명씩 촛불을 켜 평화와 연대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비록 시리아 내전의 아픔과 현실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리아 청년들의 고통과 희망은 더 이상 먼 나라의 까마득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일치된 세상을 향해 미력하나마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시리아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행사 포스터



(맨앞 좌측부터) 왓심 파쿠, 마즈드 알자흠, 조지나 음바예드



## ACN 한국지부, 제주교구 하귀성당 방문

지난 7월 29일 그리고 주일인 30일, ACN 한국지부가 제주교구 하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하귀성당은 이미 두 차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ACN에 성금을 전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당 주임이신 나기웅 신부는 “교회는 하나”라며 ACN이 전달하는 전 세계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항상 접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CN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하귀성당 교우 여러분과 여행 중이셨던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시간과 기회를 선물해 주신 나기웅 신부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교구 하귀성당

## 가톨릭평화신문, 파키스탄 교회를 위한 성금 전달

ACN 한국지부는 지난 5월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차별 속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파키스탄 신자들의 이야기를 가톨릭평화신문의 특집 기사와 ACN 특별 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당시 가톨릭평화신문에서는 두 차례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라는 사랑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며 파키스탄 추기안 공동체와 물탄 교구 살렘 신부의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의 ‘다모마 푸르안 추기안’ 마을은 그리스도인 빈민촌으로 모진 종교 탄압을 피해 신자들이 일군 새 터전입니다. 기둥과 반쯤 쌓은 벽만 있는 성전은 언제쯤 지붕이 올라갈지 알 수 없으며, 성당 옆 공터에 지으려고 했던 초등학교 공사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건축은 추기안 공동체의 꿈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파키스탄 교회를 튼튼하게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학교를 지으면 추기안 아이들은 빈민촌의 첫 교육 세대가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 물탄 교구의 형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렘 신부가 살고 있는 성 베드로 본당의 관할 구역은 웬만한 도시 면적보다도 넓지만, 그는 바퀴만 겨우 굴러가는 낡은 승합차로 여기저기 흩어진 가난한 공소 10개를 방문합니다. 15년 된 차량이 말짱을



지붕 없는 성전에서 ACN 방문단과 추기안 공동체



항상 웃는 얼굴의 살렘 신부 © 가톨릭평화신문 김원철 기자

부러 사막의 은수자처럼 피약별 아래 하염없이 걸어야 했을 때도 있지만, 살렘 신부가 왔다며 좋아하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길 위의 사제’인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파키스탄 교회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가톨릭평화신문에 **각각 1800만 원과 1660만 원의 성금**이 담지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진행된 ‘사랑의 피어나는 곳에’ 성금 전달식 미사에서 추기안 공동체와 살렘 신부를 대신해 성금을 전달받은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은 한국말로 거듭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쿠바, 그리스도를 위해 불태우는 열정

“예수님은 변두리에 사시던 분입니다. 갈릴래아는 로마 제국의 권력 중심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은 영적이고 인간적인 혁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보물을 우리는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기회를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교회의 선교 사명을 기억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복음의 보물을 나누는 것은 보통 변두리에서 쓰디쓴 가난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희생 수도회(Misioneras de Jesús Verbo y Víctima)’는 사제가 없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과시말(Guasimal) 지역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수녀 다섯 분이 30개 마을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적대적인 공산주의가 슬픔과 절망을 안겨 주었고 지금은 이단 교파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손쉽게 걸려 들고 맙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수녀들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9천 명의 영혼들이 잿더미 위에 서서 수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25년 넘게 작은 버스 한 대로 마을과 마

을 사이의 20km 이상 되는 길을 다녔습니다. 수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만 현재 생활을 유지할 돈이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마리아 베로니카 수녀는 식량과 의류, 물, 전기 등 생필품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영적인 충전을 하기 위해 수도회 본원에 다녀가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수녀 한 명당 1년에 900유로(약 1,170,000원) 씩입니다. 이는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다 다라 그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게”(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88항) 하려는 것입니다. 쿠바 땅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쿠바의 소녀들이 교리를 배우고 있다

## 나일강변의 십자가의 길



콥트 교회 어린이들,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바로 고향 이집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통의 힘을 밝히면서 사도 바오로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고통의 문제에 관한 교황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을 위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오로가 남긴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게 유괴되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향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증표로 팔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 또한 복음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콥트 가톨릭교회는 이 신자들이 고통을 참아 낼 수 있도록 고통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 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구원으로 이끄는 고통입니다. 콥트 가톨릭교회는 ACN에 십자가의 길 소책자 5천 부를 인쇄하기 위한 비용 3,800유로(약 4,940,000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나일강변 교회를 위한 생존의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파키스탄의 혼인성사 봉사자들

# 평화를 위한 위대한 작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을 ‘하느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여기십니다. 가족은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의 명작은 힘을 보탬 도움을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무슬림 2800만 명이 사는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교구에는 가톨릭 신자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슬람교 중심의 환경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치,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 신의 불가해소성 등 혼인성사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느님의 명작 협조자들, 즉 혼인성사 봉사자들은 혼인하고자 하는 가족들을 찾아가 혼인교리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사의 은총으로 가족 내의 분쟁을 해결할지, 그리고 젊은 이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서로 교제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섯 쌍의 부부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가정 사목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이제 자신들이 배워 알게 된 것을 다른 예비부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제 열일곱 명이 협력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 교육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교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삼손 슈카르딘 주교님이 ACN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CN은 12,750유로(약 16,575,000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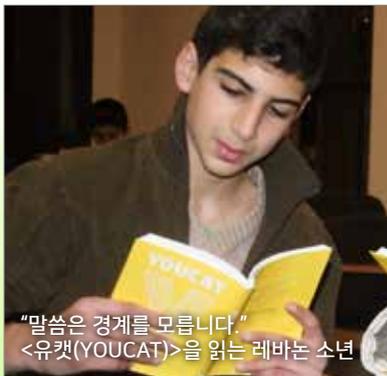
다. 이로써 앞으로 3년 동안 하느님의 위대한 작품을 후원하는 과업의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인 돌봄 사업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를 관할하는 방기대교구에서 오랫동안 희망해 온 바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에이즈, 너무 이른 나이에 출산하는 산모, 3년 동안의 내전에 따른 전쟁고아와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문제들이 더 산적해 있습니다. 교구에서 장차 사목 협력자로서 가족들과 부모들에게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하게 될 78쌍의 부부들은 평화를 위해 특별히 조직된 팀의 구성원입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류 가족을 위한 평화는 가정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ACN은 이 하느님의 위대한 작품을 돌보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기대교구에 **13,000유로(약 16,900,000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세례식,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 진리를 위한 갈망



"말씀은 경계를 모릅니다."  
<유캣(YOUCAT)>을 읽는 레바논 소년

“가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 큰일을 해야 해요. 말하자면 어린이 성경 발간 같은 것 말입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는 종종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과 삶, 가족, 교회 청년들의 관계를 인지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ACN에서 펴낸 어린이 성경은 **187개 언어로 제작되어 전 세계 202개국에 보급**되었으며 **총 보급 부수는 5100만 부**에 이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서 <유캣(YOUCAT)>도 있습니다. 이 책은 교리문답서, 청소년용 성경, 기도서, 견진교리서, 그리고 실천적 측면

면에 초점을 맞춘 사회교리서 <두캣(DOCAT)> 등 다양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펴낸 이들은 AC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50개국 이상에서 발간된 <유캣(YOUCAT)> 교리문답서 하나만도 총 발행 부수가 400만 부에 이릅니다. 이것은 이미 ‘무엇인가 큰일’입니다. 후원자 여러분이 큰 도움을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다른 전례서와 종교 문헌 및 서적 150만 부 이상이 ACN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역시 성경입니다. 그 발행 부수는 어림잡아 300억 부쯤 됩니다.



# 교리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로로 6세 교황은 회칙 <인간 생명>에서 “부부에는 책임 있는 부모의 사명을 부부에게 요구한다. 부모의 책임이 오늘날 대단히 강조되느니 만큼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간 생활에 고유한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온두라스** 테구시갈과 대교구의 ‘교육과 가정생활 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교황 회칙 <인간 생명>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는 단지 성적인 문제와 임신 등에만 관심을 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 캠페인은 부모와 가정의 더 큰 결합, 성과 사랑, 감정과 이성, 혼인한 이들과 사회의 가치와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릅니다.

부부 사이의 자연적 결합은 젠더 통합교육, 페미니즘, 상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 빛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결혼과 가정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디어마저 이를 부추깁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정 사목은 이러한 풍조에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온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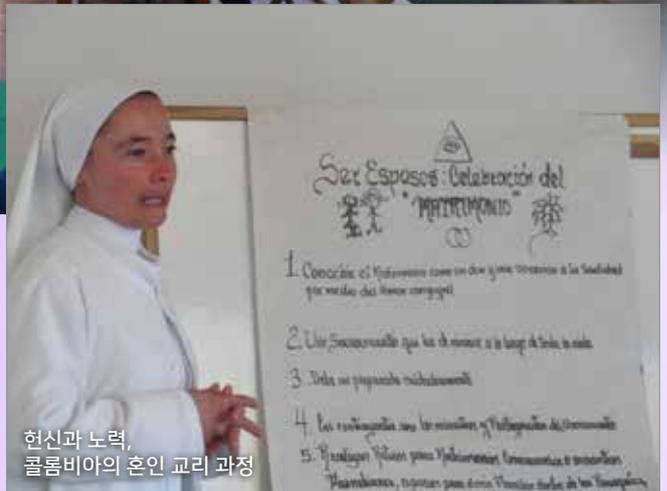
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가치에 ‘절대적’인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책임 없이 부모 되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낙태와 임신, 퇴폐적인 관념들과 전통적 가치 사이의 대립, 젊은 세대의 에이즈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캠페인은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가정생활 센터’는 지난 25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 캠페인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TV, 인터넷 등의 매체에 광고를 통해 소비 위주 풍조와 성 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풍조는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테구시갈과 대교구는 교육 영역에서,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일차적 교육자가 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해 부모들과 함께 저항하고자 합니다. 테구시갈과 대교구에서는 또한 짧은 영상과 예시를 통해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 나프르 임신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전 세계적 혼란을 막아 내기 위하여 ACN은 테구시갈과 대교구에 **10,000유로(약 13,000,000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르침은 배움을 전제로, 온두라스에서 그 선구적 작업을 하고 있다



페루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하고 있다



헌신과 노력, 콜롬비아의 혼인 교리 과정



# “저는 책장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감동을 주는 이야기, 이 책지가 감옥 안에 빛을 비추준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복음사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손과 발을 갖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고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 곳곳에 빛과 치유를 가져다줍니다.

하느님 말씀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브라질의 교정사목 현장에서도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발디르 조앙 신부는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언제나 성공을 거둡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조앙 신부는 상파울루에서 교정사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감옥은 세상의 변방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지만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은 여러 수감자들에게 내적 자유의 서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창살 너머에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세상과 소명>이라는 정기간행물이 교정 사목에 작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이 책자를 받을 때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장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재소자는 감옥에 관한 힘든 소식들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우

리는 정말 그렇게 삽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은 정기구독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ACN은 7,800유로(약 10,140,000원)를 들여 조앙 신부와 다른 교정사목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소자가 60만 명이나 되는 현실 속에서 그저 수십 명이 이 책자를 읽는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 돌 하나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지만, 발행 부수로 표시되는 숫자 하나하나가 이 어둡고 구석진 곳에 빛을 가져올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는 치유의 씨앗입니다.



창살 너머로,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재소자들

## 예수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세례를 받은 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교리 교육을 받을 필요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네갈 다카르 메디나 교구 교리 교육국의 표어입니다. 그 목표는 우선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교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90%에 이르고 그리스도교 신자는 5%에 지나지 않는 이 나라는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이 20세 이하입니다. 그렇기에 이 표어는 영적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핸드폰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보유한 젊은 세대들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 가운데 대다수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책은 정보 전달과 교육의 필수 수단입니다. 레이몽 은디온 신부는 “세네갈

교회는 젊고 역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디온 신부는 교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리 교육은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황청의 방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7~8세 학생을 위한 72쪽짜리 교리 교육 책자 <예수님, 당신은 저를 초대하십니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요가 많으며 어떤 학생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6천 부를 새로 찍어야 하는데 80센트(약 1천 원)에 불과한 책값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CN은 레이몽 은디온 신부에게 인쇄비로 4,500유로(약 5,850,000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세네갈 학생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책이에요.” 수도 다카르에서 교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



## 마다가스카르까지 닿은 감사의 손길

마다가스카르 '성 바오로 딸 수녀회'의 졸랑에 수녀는 서적 간행 사목이 열매를 맺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된 작은 교리 문답서와 말라가시어(마다가스카르 원주민들의 언어)로 된 묵주기도 책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졸랑에 수녀는 "어린이를 위한 묵주기도 책자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이기도 하고, 그보다 나이 많은 이들을 위한 묵주기도 책자는 성인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 기도나 기도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의 재고는 이미 다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졸랑에 수녀는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폰 쥐트비크

Johannes Freiherr  
Heereman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 즉 성령 강림 때부터 우리는 언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과 교리문답서 소책자, 그 외의 다른 책들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과업은 복음의 이해로 이르는 길을 닦아 줍니다. 그 가운데 청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 바로 <유캣(YOUCAT)>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즐겨 보면서 단숨에 읽어 내려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세계청년대회 같은 곳에서는 이 책을 수만 부나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그동안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 발행 부수는 백만 부에 이릅니다. ACN은 이 책을 전 세계에 보급하도록 후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ACN이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덕분에 책 보급이 수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책들도 <유캣(YOUCAT)>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 중의 책인 성경, 그것도 청소년용 성경입니다. 이 책에 실린 복음은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의 청년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ACN 후원자 여러분이 큰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덕분에 교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대신할 수 없는 선교 사명

저는 그리스도교가 대규모로 박해받는 곳에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고 사제와 수녀를 양성하며 신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통한 선교, 그리스도의 말씀 전파를 통한 선교, 선행을 통한 선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ACN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은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한 남성

### 원주민을 위한 묵주기도 소책자

저는 지금 14년째 호주 퀸즐랜드 주의 한 원주민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두 명의 여성들이 제게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요청했습니다. 무려 14년 만입니다. 저는 이곳에 얼마나 큰 축복이 내릴지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CN이 제작한 묵주기도 책자 10부를 주

문했습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20개의 신비, 성경 말씀 구절, 묵상문과 기도문 등이 포함된 책자입니다. 아주 잘 만든 책이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성 신자들도 좋아합니다.

호주에서 한 수녀

### 잔치 대신 기부물

제 딸아이가 최근에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축하 잔치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데 잔치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ACN이 우리를 도와주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부한 것들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브라질에서 한 부부



전화: 02-796-6440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사랑의 메아리 2017년도 제6호)

발행: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번역: 조원형 | 편집: 유영훈, 이재원 | 사진: 별도 표기  
Original German Edition | Publisher: Aid to the Church in Need Intl. | Editor: Jürgen Liminski

구글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



*Johannes Freiherr Heereman*